

완도해조류박물관 개막 첫 주말 표정

지난 13일 완도군 완도항 일대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물관' 주변은 단체 및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오전 10시에 내린 빗방울도 국내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한 박물관을 둘러보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했다.

개통 10년 광주 지하철

지구 343바퀴 거리...1명당 年 10회 이용

광주 대중교통의 다변화를 가져온 광주 지하철이 오는 28일 개통 10주년을 맞는다.

이용객 10년간 38%↑ ...수송 분담률 2.7%

지난 2004년 4월 28일 첫 운행 시작한 도시철도 1호선은 10년 동안 운행거리 기준으로 지구를 343바퀴나 돌 만큼 광주 시민의 발이 돼 왔다. 하지만,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채는 여전히 부담이다.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수송분담률도 해결 과제다.

무임승차 많아...연간 수백억원 적자 부담

건설부채가 일부 줄면서 2010년 877억원, 2011년 607억원, 2012년 455억원, 2013년 368억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13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비 총 1조6444억원이 투입된 광주 지하철 1호선은 20.5km에 모두 19개 역이 설치돼 있다. 1호선은 두 개 구간으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1구간(용산 차량기지~상무역)은 2004년 4월 28일, 2구간(김대중컨벤션센터~옥동 차량기지)은 2008년 4월 11일 개통됐다.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채는 건설 부채와 함께 무임이용객 증가의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 2012년 기준 광주지하철 총 승차인원 1804만1000명 중 무임승차 인원은 65세 이상 노인, 국가공공자, 장애인 등은 32.5%인 830만7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국 7개 지하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은 15.4%에 머물고 있다.

광주지하철은 지난 10년 동안 총 1373만6956km를 운행했다. 지구 한바퀴가 약 4만km인 점을 대입하면 지구를 343 바퀴나 돈 것이다. 10년간 지하철 운행횟수는 89만9467회에 달했다. 하루 평균 250회 안팎이 운행됐다.

지하철 1호선이 광주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지만, 수송 분담률은 여전히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승용차 39.9%, 시내버스 36.5%, 택시 14.7%, 지하철 2.7%, 기타 8.1%다. 반면 광주에서 지난해 대중교통에 쏟아부은 지원금은 버스 400억원, 지하철 390억원, 택시 174억원 등으로, 지하철의 비중이 높다.

총 이용객은 1억5300여만명으로, 광주 시민 1명당 평균 100회 정도 지하철을 이용했다. 시민 1명이 연 10회 정도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용객은 하루평균 2004년 3만 573명, 2008년 4만3142명, 2013년 4만 933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낮은 이유는 노선이 단선인 영향이 크다. 실제 대구 지하철도 1호선일때 3% 수준이던 수송 분담률이 2호선 개통 뒤 7% 수준까지 올라갔다. 광주시는 오는 2023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수송분담률도 11.2%로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곡, 첨단, 수완 지구 등을 지나는 2호선 구간에는 광주 시민 70%가 거주하고 있다.

운행 수익은 10년 동안 총 848억2100여만원이다. 반면 부채는 2004년 29억원에서 2009년 1262억원까지 급증했으나,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무임 승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서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액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작자 누적 등으로 광주 지하철의 시설 개선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승객 안전 확보와 역내 공기질 개선에 효

과적인 광주지하철의 스크린도어(안전문) 설치율은 19개역 중 11개로, 57.9%에 불과하다. 서울과 대전 지하철의 설치율은 100%다.

저소득층 초등생에 치과주치의 뜬다

광주시, 다음달부터 충치 등 치료 혜택

준과 진료범위, 지원액 기준 등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광주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해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치과주치의사업은 보건소와 주치의 지정 치과사가 대상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부터, 예방, 관리까지 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광주시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광주시치과사의회와 5개구 보건소와 공동으로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정자 광주시 건강증진 담당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아건강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영망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는데, 이번 치과주치의제 도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치과주치의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수혜 대상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5월부터 1차적으로 1억원을 투입, 구강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초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구강 위생관리와 올바른 칫

솔질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불소 도포, 치아홈 메우기, 치석 제거 등 구강질환 예방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구강질환치료를 포함한 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을 예정이다. 해당 아동에게는 1인당 연간 2만원~32만원의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치과주치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 대표와 보건 의료 관련 단체 대표, 치의학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13명으로 지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

관주, 다음달부터 충치 등 치료 혜택

관주, 다음달부터 충치 등 치료 혜택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꼭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북개사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통 새마을금고)

대표 전화: 본점:361-3515 양동지점:362-6164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원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

하루 관람 2만명 ... 인근 명소 '북적'

이날 낮 12시 비가 완전히 그치기 전에도 1만27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행사장으로 몰려들었고 주제관과 생태환경관의 경우 전시관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들로 50~100m 넓은 길 줄이 만들어졌다.

또 '슬로우 걸기 축제'가 한창인 청산도는 물론 완도수목원·청해포구 해신드라마세트장·완도타워·어촌민속전시관 등 인근 관광지, 읍내 식당가도 완도관광에 나선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시관마다 관람객 북적=완도해조류 박물관 조직위원회는 박물관 성공을 예상하는 신호라며 연일 구름 관중에 흥분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행사가 개막된 11일 전시관이 문 열기 전부터 완도항 주변과 인근 도로에는 차량이 밀려들었다. 개막 첫날인 11일에는 2만2643명이 완도해조류박물관을 찾았고 12일에는 화창한 날씨 속에 3만108명의 관람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박물관 곳곳에 길게 줄지어 늘어섰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박물관 주차장도 하루종일 북적였다.

특히 광주를 비롯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관람객이 찾아와 '해조류'를 주제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의 강점이 부상하고 있다고 조직위는 분석했다.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라!'라는 박물관 주제를 담아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2층 규모의 주제관(연면적 1360㎡)은 전시관을 입장하려는 관람객들로 둘러싸이는 진경풍도 벌어졌다. 최근의 '웰빙' 열기를 반영하면서 해조류를 소재로 한 건강음식, 해조류 효능체험 공간으로 채워진 건강식품관과 해조류를 활용한 상품들이 전시된 해조류기업관, 산업자원관 등도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가족 단위 관람객 '환호성'=박물관 조직위원회가 박물관 전시관 주변에 조성한 풍성한 체험 코너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관람객 몰이를 하고 있다. 20~30분 동안 청정 바다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친환경 수상자전거' 체험 및 고급 요트(8t·4.5t 2대)를 타고 1만원(청소년 기준)으로 1시간 동안 완도 해안가를 둘러볼 수 있는 '세일링 요트 체험'코너는 어린 자녀를 태우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4m가 넘는 살아있는 다시마를 직접 만져보는다면, '바다 국수'라는 꼬시래기와 김 등을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부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완도군과 조직위가 박물관을 앞두고 바지선 접안을 금지하고 탁 트인 청정 바다 풍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원에서 온 임영수(61)씨는 "전시관을 둘러보며 걷다 보면 신선한 바다 내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먼길 온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국제해조류박물관은 오는 5월 11일까지 완도항~완도해변공원~장보고 유적지를 잇는 완도엑스포벨트에서 계속된다. /김지수기자 jeans@kwangju.co.kr

13일 완도군 완도항 일대에 조성된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물관' 전시관 주변은 하루 종일 북적였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박물관에 마련된 주제관·생태환경관·건강식품관 등 전시관을 둘러보고 친환경 수상자전거·해조류 요리교실 등 풍성한 체험 행사를 즐겼다. /김지수기자 jeans@kwangju.co.kr

완도군과 조직위가 박물관을 앞두고 바지선 접안을 금지하고 탁 트인 청정 바다 풍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원에서 온 임영수(61)씨는 "전시관을 둘러보며 걷다 보면 신선한 바다 내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먼길 온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